

고창군,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대책위' 발족

소상공인 긴급지원·농특산물 소비 촉진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고수면 봉산리 일원 20개 기업 유치 2000여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도

고창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유기상 군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고창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는 유 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기업인협회, 고창경제살리기 여성회, 고창외식업지부, 숙박·관광·전통시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대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공공요금 지원(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2060개소 대상), 관광 사업제 홍보·마케팅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높을고창카드 100억원 상당 추가발행(할인을 10% 확대 지원),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 업소 확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긴급지원금(300개 시설 70만원씩) 등이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드라이브 스루 농특산물 소비촉진행사 추진, 고향 농산물 TV홈쇼핑 방송 송출 등 지원, 복지재정 조기 사용, 재외국민 내

고창 물품 2배 팔아주기 등이다.

위기 안전망 강화는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한시 생활비 지원, 노인사회활동 및 일자리 사업, 사회적시설 방역물품 지원, 아동양육 긴급지원 등이다.

특히 고창군은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해 국·도비는 성립 전 집행하고, 재난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 집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후 5월 초 전북도 추경이 마무리되면 추가 사업 등을 포함해 신속한 고창군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고창군 의회의 심의를 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유치권이 해소된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총력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엔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고창군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 타 시·군에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특작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속도로 IC가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나 있어 유통이 편리하고, 대도시 소비처(광주, 전주 등)도 근처에 있어 식품산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향후 고수면 봉산리 일원 64만㎡ 부지에 20개 기업을 유치해 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분

야별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장성군, 경기 부양·민생 안정 추경 48억원 편성 신속 집행

장성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예산 편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초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를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먼저 재난 긴급생계비 지급과 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 지원에 48억원을 편성한다.

장성군은 재난 긴급생계비로 34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에 14억원을 책정한다.

장성군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을 최대 30만원(3개월간 월 10만원), 총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장성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등 사업별 지급방식에 따른다. 장성군은 즉각적인 소비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원금의 사용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 25일에도 코로나19 관련 민생예산 등을 포함한 총 33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국내 첫 LNG 컨테이너선 건조

싱가포르 EPS사서 수주 2022년까지 6척 인도

1회 충전 아시아·유럽 왕복운항

현대삼호중공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LNG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에 성공했다.

29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26일 회사독(Dock)에서 싱가포르 EPS사가 발주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인 'CMA CGM TENERE(시엠 에이 시지엠 테네레)' 호를 진수했다.

이 선박은 길이 366m, 폭 51m, 깊이 29.85m 규모로 20피트 컨테이너 1만4800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컨테이너선이다.

지난해 7월 강제 절단을 시작으로 본격 공정에 착수했으며 12월부터 독에서 탑재작업을 했다.

이 선박은 시운전을 거쳐 오는 7월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 선박에 국내 처음으로 LNG 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해 건조했다.

이 선박은 세계 최초로 9프로키엘강을 사용해 제작된 B타입 LNG 연료탱크가 장착됐다.

유조선이나 벌크화물선에 주로 사용되는 원통형인 C타입에 비해 B타입은 보통 각기둥 형태라 비교적 형상의 제한 없이 설계·제작이 가능하므로 연



현대삼호중공업이 진수한 국내 첫 LNG DF 컨테이너선.

료탱크의 배치 공간 확보가 까다로운 컨테이너선에 적합하다. 이 컨테이너선은 1만2000CBM급의 연료탱크를 탑재해 1회 가스 충전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싱가포르 EPS사로부터 총 6척의 동형 선박을 수주해 건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2022년 3분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

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타입의 엔진 추진과 배기 방식의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LNG추진선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 가뭄을 해소하고 조선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생계비 등 147억원 투입

익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추가경정 예산 147억원을 확보해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 지원된다.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6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총 9670여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익산 지역화폐인 '익산도e로움' 발행액을 당초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10%의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상당의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최대 19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급한다. 소속 근로자 1인 1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한다. 총 331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농산물 가공업 활성화 '앞장' 순창군, 5억9000만원 투입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의 소득 창출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 등 모두 7개 사업, 45곳에 총 5억9000만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1일부터 HACCP 의무 적용대상인 연 매출 1억 미만 혹은 종업원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순창군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지원사업(3곳)과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1곳),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1곳),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10곳) 등을 추진한다.

또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포장재 개발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맞춤형 농산물 포장재 개발 교육 및 지원(15곳),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개선 지원사업(10곳), 소규모 가공사업장 관측행사지원 등을 통해 제품 포장의 디자인적 요소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순창군은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 달 2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The K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